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사, 행복충전활동 농촌일손돕기

김용득 기자 (yongd378@ksmnews.co.kr) | 입력 2021/11/06 17:12

☞



[경상매일신문=김용득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사는 지난 4일 가을 수확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행복충전활동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일손돕기는 상주시사 직원 20여 명은 일손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공성면 오공리 장 모씨 농가를 방문해 콩 수확과 페비닐 수거 작업 등 봉사활동에 직원 모두가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돕기 지원을 받은 장 모 농가주는 "수확기를 맞아 연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빠른 일정 속에서도 지원 나온 직원을 덕분에 항시름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항기 상주시장은 "지역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메일] jebob@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투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